

## 터키 이스탄불 포장 전시회(EURASIA PACK 2015)

우 현 정 / (사)한국포장협회 관리부 대리

포장이란 제품의 생산을 시작으로 소비에 이르기까지 상품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및 제지, 목재 등 다양한 포장 재료로 시장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포장은 각 제품의 생명을 주는 우리의 삶과도 같다는 말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진다.

협회에서 제작하는 동안 일본의 도쿄팩(TOKYO PACK), 독일의 인터팩(INTER PACK) 등 다양한 전시회에 참관을 하고, 간접적으로 전시회 정보에 대해 들어 봤지만, 이번 2015 유라시아팩(EURASIA PACK)은 너무나도 생소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생소하게 느껴진만큼, 호기심과 설렘을 갖고 참관을 하게 되었다.

이스탄불 포장 전시회(EURASIA PACK 2015)는 터키 최대의 포장전문 전시회로 매년 전년대비 약 15%씩 성장하고 있는 유럽에서 3번째로 큰 전시회이다. 또한 터키는 유럽과 중동지역의 교두보 지역의



▲ 한국관 참가사 및 참관단

특성으로 인해 관람객의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한다. 그만큼 새로운 포장산업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의 기회라는 생각과 함께, 유럽의 전시회를 처음으로 참관하는 나로서는 그 기대감이 상당히 컸다.

매년 개최되는 유라시아팩(EURASIA PACK 2015)은, 제21회를 맞아 TUYAP Fair Center에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총 14개 전시홀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42개국 1,200개 이상의 지역 및 국제에서 출품, 93개국에서 50,000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바이어가 대거 참석하였다.

역시나 규모만 살펴보다라도 세계 포장인들의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기회의 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눈에 띄는 전시회 특징으로는 8, 9관에 마련된 “Printpack”이라는 특별 섹션이었다.

“새로운 개념 유라시아 포장은 포장 및 라벨 인쇄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 아래, 제21회를 맞은 유라시아팩(EURASIA PACK 2015)은 식품 가공, 포장기계 및 장비 솔루션의 조합으로 함께 전시되었다.

유라시아팩(EURASIA PACK 2015)의 새로운 프로젝트 “Printpack”(특수 인쇄 기술)은 프린팅 시스템 및 기술을 가진 인쇄 잉크, 롤러 코팅, 라미네이팅 및 제품 시스템, 제어 및 조절 장치, 라벨 인쇄기, 종이 및 필름 제조 업체 및 RFID 시스템 기술 제공 및 서비스 등 포장 산업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부스이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에는 “Printpack”과 함께 “DairyTech, SweetTech”라는 특별 섹션도 찾아볼 수 있었다.



▲ Eurasia Pack 2015

포장 제품 및 포장 재료 등 “Printpack”이라는 특별 섹션(8, 9관)이 포함되어 있는 전시장(2, 3, 4, 6, 7관), 식품 포장 기계 및 장비 그리고 사이드 산업(우유와 낙농제품, 생산기술 및 신선한 과일과 야채, 냉동 및 물류 기술, 제약 및 화장품, 소비재(식품) 등)이 전시(4, 5, 10, 11, 12, 14관)되어 있으며, 초콜릿, 과자, 비스킷, 견과류 및 제과 기술의 기계 및 장비의 “SweetTech” 섹션(14홀)을 접할 수 있었다.



## 참관기

특히 이번 전시회에 주목할 점은, 협회 회원사인 성안기계(주), (주)원지, (주)선양, 위더스케미칼(주), (주)남경, (주)부성엔지니어링 등 6개사와 세진테크(주), 퓨처팩, 씨엔케이프로팩(주), (주)제이에스엠 등 비회원사 4개사가 부스를 마련, 총 10개사가 제8전시장 안에 포장협회 주관아래 공동관으로 참가했다는 점이다.

포장협회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첫 교두보로 선택한 터키 이스탄불 포장전시회(Eurasia Pack 2015)를 통해 한국관 참가업체들은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진을 기대함으로써 많은 바이어 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수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유라시아팩(EURASIA PACK 2015)에는 FOOD-TECH에 대한 전시도 관람할 수 있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식품 및 음료 산업의 식품박람회는 매년 유라시아와 동시에 개최된다.

터키는 현재 빠른 소비재를 이동하고, 소매 부문이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식품 및 음료산업이 소매 시장의 거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8%의 성장을 예상하고, 2017년에는 226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소비자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발하며, 노력하는 유라시아팩(EURASIA PACK 2015)의 현장을 둘러보며 벅찬 감동을 느꼈다. 또한 포장협회 공동관으로 참가했던 국내 업체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국내 포장전시 또한 더욱더 발전되기를 바라본다.

한국관 참가업체들은 물론, 협회 참관단 모두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선진 포장기술은 물론 원·부자재의 신소재 개발을 비롯해 포장기계 개발 동향 등의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견문을 넓히는 기회의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



▲ 한국관

마지막으로 생생한 포장산업의 현장을 참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포장협회와, 마지막까지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던 포장협회 장형순 부회장님과, 삼아알미늄(주)의 박원수 이사님 외 함께 고생하셨던 모든 참관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